

Style 1 조선일보

MAY 2013 vol.93



Ermenegildo Zegna



마치 타고난 피부처럼!

감히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특별함, 랑콤이 젊은 피부의 비밀을 밝히다

NEW
-ADVANCED-
GÉNIFIQUE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 젊음의 단백질 활성 세럼™

250% 더 강력해진 성분으로 피부 속 단백질을 활성화 시켜 속부터 건강하게 하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눈으로 손끝으로, 7일 후 드라마틱한 10가지 젊음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한국 여성들의 7일 후 10가지 피부변화*

눈으로 보이는 변화

손끝으로 느껴지는 변화

건강해 보이는 피부 78%

어려진 피부 81%

주름개선 76%

탱탱해진 피부 90%

맑아진 피부 86%

촉촉해진 피부 81%

건강한 윤기 76%

피부장벽 강화 100%

균일한 피부 81%

피부결 개선 86%



LANCÔME
PARIS

*한국 여성 21명 대상 8주 임상실험, 7일 후 자기평가 실험결과



Chloé

MADE IN ITALY - THE SOURCE S.P.A.



4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에르메네제스토 재나 컬렉션의 2013년 S/S 광고 비주얼이다. 더블-워킹 코트와 이터나트 실크 소재를 사용한 투 버튼 재킷에 싱글 플리드 팬츠, 반티지아급 차원한 바나나 잎 프린트의 재나 실크 소재 트릴 셔츠를 매치했다. 왼손에 착용한 워치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몬테루벨로 솔로 템포 워치다. 문의 02-511-0285



24

- 14 **디자인 · 기술 · 비즈니스의 진취적인 조화, 영국의 발명 정체성을 이어가는 혁신가 MARK SANDERS** 변잡한 도심에서 유용한 풀딩점프식) 바이크 시리즈로 자전거의 역사에 이름을 각인한 마크 샌더스. 그에게는 엔지니어도, 디자이너도 아닌 발명가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린다.
- 16 **JUST FOR YOU** 가격이 합리적인 2백만원대 이하의 주얼리를 소개한다.
- 18 **THE GIFT FOR HER** 클래식한 기쁨부터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액세서리, 인티에이징 코즈메틱, 봄을 느끼게 하는 향수까지,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활용도 높은 선물 아이템.
- 22 **THE GIFT FOR HIM** 중추하고 품위 있는 남성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남성 선물 아이템.
- 26 **THE GIFT FOR KIDS** 마블과 벨트, 상상력을 키워줄 캐릭터 장난감과 케이스 등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프트 컬렉션.
- 28 **BAG STAGE** 이번 시즌 여심을 흔들 잇 백(Bag)은 무엇? 패션 하우스들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2013 S/S 뉴 백 컬렉션.
- 36 **DESIRABLE COMFORT** 천연 소재들을 가득 담은 우아한 디자인에 탄력도가 출중한 특수 스프링 시스템까지 갖춰 영국 왕실에서 애용한다는 수공 침대 브랜드 바이스프링(VI-spring).
- 37 **DAZZLING PROPOSE** 루시어가 제안하는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프러포즈, 로즈 클라리크 컬렉션.
- 38 **NO.1 FOUNDATION** 10cm 앞에서도 자신 있는 롱 래스팅 파운데이션, 에스티 로더 더블 웨어를 소개한다.
- 39 **COMPLETE PROTECTION**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여성에게, 인티에이징 기능으로 피부 안팎을 동시에 보호하는 샤넬 수블리마지 리오의 새로운 차단제를 추천한다.
- 40 **SPARKLING TIME** 올해로 다섯 번째 창사하는 세계적인 시계 전시회 바젤 월드에서 소개하기 전 미리 공개하는 워치 컬렉션. 스위스 스키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 41 **POWERFUL ANTI-AGING** 주름을 넘어 모공이 탄탄하게 조여진 탄력 있는 피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카렐의 새로운 화장품, 파워풀 링클 리두싱 라인에 그 소망을 이루어준다.
- 42 **THE SUPER SERUM** 울퉁, 그린미리클™ 성분을 더해 더욱 강력해진 ABC 세럼은 흐트러진 피부 리듬을 바로잡고, 피부 속 콜라겐을 증진시켜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한다.
- 44 **RESTORE YOUR SKIN** 4백 년 전통의 뷰티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천연 식물 성분을 담은 리스토링 라인을 출시한다.
- 45 **PERFECT EYEBROWS** 지금 베네피트의 브라우 비를 찾았다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눈썹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 46 **LX FACTORY** 포르투갈 리스본의 오래된 공장이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다.
- 48 **이국적인 풍경과 유럽의 편안한 여유가 조우하는 곳 WONDERFUL MOROCCO** 유럽인들에게 모로코는 이국적인 나라의 대명사이다. 언제나 따뜻한 날씨, 사막과 바다, 산악 지대 등 모든 지형 조건을 갖춰 경이로운 자연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Style 조선일보

Issue.93 May 201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ING PROCESS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 SELLERIA COLLECTION SERIES 8120 INTERCHANGEABLE STRAP SYSTEM IS A REGISTERED MODEL

FENDI



펜디 워치는 전국 유명 백화점 내 갤러리어플렉 매장 및 펜디 부티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80 3284 1300 FENDI.COM

Jewel GOLDEN RULE

그 어떤 변화에도 영원히 가치를 잃지 않는 옐로 골드 주얼리 컬렉션.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네치아의 화려한 무드를 그대로 간직한 스텔라 네크라스 2백만원대 **타피니**, 모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의 자스트 앵글루 링 2백70만대대 **카르미에**, 불기리를 대표하는 비 제로원 미니 컬렉션 네크라스, 참 형태로 운동감이 느껴져 멋스럽다. 4백만원대 **불가리**, 불용감 넘치는 제안을 모티브로 한 포제션 클라식 링 5백10만원대 **파이제**, 핑크 골드 밴드의 가장자리를 등관 비즈로 장식한 베를리 링을 무량 폴리싱 기법으로 마무리한 베를리 사틴 피니쉬 링 3백90만원 **반들리프 아벨**, 옐로 골드 스트링 두 줄을 꼬아 만든 심플한 디자인의 K-11 이어링 1백만원대 **타사키**, 유가적인 형태의 조약돌을 연상케 하는 골드 스톤 컬렉션 5백90만원대 **에이저스텐**, 에디터 배리진



Beauty YOU, TUBE!

지금 바로 파우치에 넣어야 할, 헨디한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써야 되는 튜브 타입 화장품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미르드 화이트 스윙 에플라 데이크림 by 온드레**는 11가지 천연 마백 허브 추출물을 함유한 100% 유기농 화이트닝 크림. 마백, 향산화, 항염, 각질 제거 기능이 천연 허브 추출물이 멜라닌 대사를 비로잡아 칙칙한 피부 톤과 잡티를 개선한다(40g 6만9천원). **블리스 하이 인텐시티 핸드크림**은 휴대가 편리한 미니 사이즈의 핸드크림. 천연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이 풍부해 손을 촉촉하게 가꾸주고 포도씨 추출물이 손의 노화를 예방한다(30ml 1만4천원). **조로초 아르마니 블러싱 파우더**는 마치 제2의 피부와 같이 자연스러운 촉조를 연출하는 블러셔. 뽀얗처럼 부드러운 패브릭 촉감이 피부에 부드럽고 파우더라하게 발리는 것이 특징이다(20ml 4만5천원). **링클 주이시 튜브**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젤 타입으로 촉촉하고 볼륨감 있는 인술을 연출한다. 먹고 싶을 만큼 풍부한 향과 다양한 캔디 컬러가 기분까지 상쾌하게 한다(15ml 3만원대). **슈에라 멀타-액션 브라이트닝 아이크림 SPF 30 PA++**은 자외선에 가장 취약한 눈가를 위한 아이 제품으로, 프론 추출물과 빛깔 입 추출물의 탁월한 화이트닝 효과에 주름 완화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더해져 눈가 피부를 매끄럽고 화사하게 가꾸준다(15ml 6만원). **카멜 블루 허블 스팟 트리트먼트**는 진행 중인 트라블을 빠르게 잠재워주는 응급 트러블 젤. 모공 속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 트러블 생성을 컨트롤하고, 살리실산, 생강 뿌리 추출물이 초기 단계의 트라블을 즉각적으로 진정시킨다(15ml 2만6천원). **클라리스 UV 플러스 HP 퍼펙팅 크림 하이 프로텍션 비크림**은 아시아 여성의 피부에 맞춘 자연스러운 컬러로 균일하고 화사한 피부 톤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완벽한 커버력을 자랑한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30ml 5만9천원). **사벨 UV 에센셜**은 피부를 안팎에서 모두 보호하는 종합적인 자외선 차단제. 썬에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포뮬러로 오랜 시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지속시킨다(30ml 6만9천원). 에디터 권유진

Focus 다채롭게 경계를 확장하는 문화 마케팅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케 경계를 넘나드는 기업의 문화 마케팅이 요즘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카메라 기업이 젊은 음악인 양성하고 재즈 확산에 공을 들이고, 커피업체는 독서 강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며, 아웃도어업체는 세계적인 감독을 내세워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영역의 감성적인 요소들을 사출, 날줄처럼 엮는 '크로스오버'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신선한 기업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국내 거물급 감독들을 동원해 무료 단편영화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코오롱스포츠는 작년 말 박찬욱·박찬경 형제가 연출하고 송진호가 주연을 맡았던 <침출아람>에 이어 최근 2편을 공개했다. 배우 윤계상, 박스배가 출연하는 <사랑의 기유비>라는 작품으로 남성적인 색이 짙었던 김지은 감독이 처음 선보이는 로맨틱 코미디다. 'Your Best Way to Nature'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맥이 닿아 있으면서도 감독의 역량을 살린 참신한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는 찬사이다. 서울 삼성동 신사옥에 출중한 음향 시설을 갖춘 '올아름'을 들여놓은 올림푸스 코리아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에도 손길을 뻗었다. 지난 4월 30일 '세계 재즈의 날'을 기념해 스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위시해 신구 재즈 뮤지션들이 모인 콘서트를 후원한 것. 추첨을 통한 관람이 이뤄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공연 실황이 중계됐다. 이디야커피는 출판사 문학동네와 손잡고 리딩 캠페인을 1년 남게 진행 중이다. 매달 추천 도서를 선정해 2백 명에게 무료 증정하는 문화 마케팅 행사다. 공식 블로그(http://www.ediyablog.com)나 전국 매장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댓글로 응모하면 된다. 에디터 고성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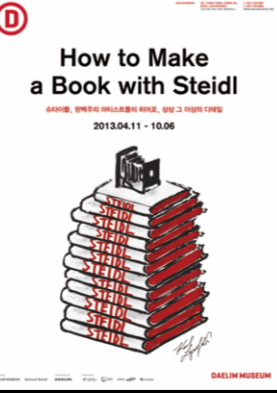
Fashion MADE IN ITALY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의 국내 문진 소식이 북돋워져 아이자는 요즘, 명품 하우스나 클래식 수트를 넘어 개발한 아이디어가 느껴지는 차별화된 이탈리아 액세서리 브랜드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자넬라토(Zanellato)는 1950년대 이탈리아 우편배달부의 가방에서 모티브를 얻은 포스타나 백을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내세운다. 가장 전면의 엔트릭한 접합점와 스타드 장식의 포인트인데, 오리지널 포스타나 백의 전형적인 장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굽 중앙 우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다. 신사들 기호수질 플라스틱 스토퍼 이후 일부 관광객을 비롯해 가족이나 이들 안에 오르바라는 브랜드 일보종데(BISONTE)는 장식이나 디자인은 최대한 절제하고 가공하지 않은 소가죽과 캔버스 원단을 그대로 사용해 소재 자체의 러프한 매력을 강조한다. 가방을 비롯해 지갑, 벨트, 신발, 문구류 등 라이프스타일을 이루는 다양한 제품군이 특징. 최근 팔찌 레이아웃 트렌드의 여세를 몰아 안가를 누리는 '크루치아니(Cruciani)'는 소박한 듯 섬세함이 느껴지는 니트 팔찌로 패션 피플을 사로잡았다. 허트, 꽃, 해골 등 다양한 모티브 장식과 선명한 컬러는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특수 원사에 니트를 다루는 뛰어난 노하우를 더해 완성도가 남다르다. 307개가 넘는 다양한 컬러의 보더와 재질의 핸들로 개성 있는 커스터마이징 핸드백을 연출하는 '오 백(O bag)'도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앤드, 아리온 더 코너 등 편집숍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아태권 편집매장 143곳. 나 폴리는 1백5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핸드메이드 우산 '말리아 프란체스코(Maglia Francesco)'를 독점적으로 전개해 럭셔리 소비자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디터 이예진



Exhibition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슈타이들>展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책 작업을 하려고 줄을 선, 그래서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5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아트 북의 달인'을 집중 조명하는 뜻깊은 전시회가 찾아왔다. 오는 10월 6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열리는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슈타이들>전이다. '내 책은 공인공인이 아니라 예술의 대상'이라는 그의 주장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슈타이들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장인 정신이 깃든 수많은 사책을 발간해온 출판업계의 거장이다. 그와 협업했던 인물들을 보면 팝아트의 가장 집 대인, (인출책)으로 유명한 노벨문학상 작가 귄터 그라스, 사물을 이끄는 패션 디자이너 칼 라펠 등 그 프로필이 정쟁하고 다채롭다. 슈타이들이 이토록 명인들의 출모를 받는 이유는 종이 책이라는 도구를 단지 예술을 담는 매개체가 아니라 작품과 아우러지는 또 하나의 예술적 창작물로 승화시키는 열정과 노후를 지녔기 때문이다. e북의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지닌 종이 책이 영원히 존재할 수도 록 지원하는 출판업으로서의 사명을 느낀다는 슈타이들의 내공 담긴 책 만들기 과정을 시간이나 아니라 촉각과 후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듯 하다. 문의 02-720-0667, www.daelimuseum.org 에디터 고성연



서울: 현대백화점 앙쿠장점 02-3438-6008,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411,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89,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194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6041,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63-1211,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1817,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265, 대구: 현대백화점 053-245-2120, 부산: 현대백화점 051-667-0128, 신세계 백화점 051-745-1239



for him
Selection

도심 속 바쁘게 생활하는 액티브한 남성을 위해 준비했다. 활동성을 높여줄 백팩과 운동화,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테크 아이템까지, 개성 있고 트렌디한 스포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입체적인 그래픽 패턴이 포인트인 모자 13만5천원 MSGM by 톱그레이하운드.

카무플라주 패턴이 눈길을 사로잡는 원단의 스포티가방 13만5천원 21만9천원 아디다스 오웬 베르디.

프리다 02-3218-5331
스외로브스키 02-777-2712
위에스씨 02-456-0678
랑방 울프 02-6905-3635
룩스타카 02-501-4436
릴프 로렌 볼레 라벨 02-545-8200
아디다스 02-547-0355
툰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루이비통 02-3432-1854
지방시 02-6905-3664
폴 스미스 02-3447-0278
에르메스 02-542-6622
주세콰 02-515-3151
노스페이스 02-940-1367

다미에 패턴을 짙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미에 아벤저 백팩, 44X25cm, 1백80만원대 루이 비통.

하리 라인에 로프 장식을 더해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한 팬츠 16만원 일레븐 파리 by 주세콰.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에디터 권무진



THE CERAMICA COLLECTION

EMPORIO  ARMANI



신용한 열로 장문의 비방력이 정미 4685만원 아디다스 x 오프강세레모니 by 톱그레이하운드.

for her Selection

이번 시즌 스포츠 트렌드는 일상에서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 산뜻한 컬러가 돋보이는 데일리 스포티 룩.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플러워 모티프로 포인트를 준 클러치 38만원 프라다.

내온 컬러 비즈로 장식한 후크 이어링 109만원 톱텐스 by 피이엔.

간디타다의 유창한 패턴 에디션의 스텝 장식과 체인이 조화를 이룬 네크리스 88만원 마유 by 10 포르소 고모.

핑크색 사파이어를 세팅한 시암스라온 링크 컬러의 투티 포루티 로즈 가격 미정 워블로.

신발 내내 편안한 라이닝이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9100원 톱텐스 by 피이엔.

투명한 프레임이 개성 있는 선글라스 45만원 마크 제이름스 by 사필로.

활동성을 위한 그립 솔라스 12088원 단모스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라인이 돋보이는 가죽 벨트 가격 미정 워블로 by 무이.

스포츠 경기에서 영감을 받은 알파스타가 위트 있는 토트백, 37x29.5cm, 54만9천원 라코스테.

자동차의 첨단 기술을 반영한 전기에너지를 구동 자전거 4백40만원에 만도푸루스.

스티드 장식으로 평키한 느낌을 더한 옥스퍼드 슈즈 82만원 프라다.

- 무이 02-3443-7808
- 무이 02-3446-8074
- 사필로 02-2017-3763
- 워블로 02-540-1356
- 프라다 02-3218-5331
- 마이론 02-6947-1270
- 마크 by 마크 제이름스 02-3442-2950
- 톱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 10 포르소 고모 02-3018-1010
- 에르메스 02-542-6622
- 라코스테 02-550-1148
- 만도푸루스 02-548-1703

매일 장사과가족 스카치가 아웃소링 모먼트 벨트를 1백만원에 에르메스.

WWW.SWAROVSKI.COM
DARI F&S
Tel. 02 513 2389



SWAROVSKI



이민정/스타일채널

디자인·기술·비즈니스의 진취적인 조화, 영국의 발명 정체성을 이어가는 혁신가

Mark Sanders

번잡한 도심에서 유용한 폴딩(접이식) 바이크 시리즈로 자전거의 역사에 이름을 각인한 마크 샌더스. 대학원 시절 고안한 미니 폴딩 바이크 스트라이다(Strida)를 비롯해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고 최근에는 체인 없는 e바이크 만도 풋루스(Mando Footloose)의 디자인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그에게는 엔지니어도, 디자이너도 아닌 발명가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린다.



1, 3, 4 잉글랜드 남부 도셋 지방의 한적한 도시 풀(Poole)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 마크 샌더스의 디자인 미학과 국내 기업 인도의 자동차 기술이 만나 세계 최초의 체인 없는 폴딩 e바이크 만도 풋루스 가 탄생했다. 1번 사진은 샌더스가 유가적인 곡선이 근사한 풋루스를 타고 바닷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 2 샌더스는 대학원 시절의 발명을 토대로 만든 미니 폴딩 바이크 '스트라이다'로 발명의 인생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그의 집 창고에 간직한 스트라이다 자전거. 5, 6 일찍 날개를 접어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접이식 도마 '칩2팟(Chop2Pot)'은 샌더스의 주원 도구 세트 중 하나이다. 7 바퀴가 큰 보통 자전거에 폴딩 디자인을 적용한 '도모'. 8, 9 샌더스의 또 다른 발명품인 일터엔벨러 터치(One Touch) 썬 오피너와 병 뚜껑을 돌려주는 '원터치 재킷' 오피너. 연두색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풍조일 캔이나 병을 열 수 있는 도구들이다. Photographer Doh Lee(1, 2, 3번 사진)



전설적인 접이식 자전거 브랜드 '스트라이다'를 탄생시킨 대학원생의 눈물

2010년 issuu.com이라는 웹사이트에는 작성한 지 무려 25년이나 된 한 석사 논문이 공개돼 소위 '테크(techie, 기술 애호가)'들과 자전거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5년 영국 최고 명문인 왕립예술학교(RCA)와 공대도 명성 높은 임페리얼 칼리지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터스트리얼 디자인 엔지니어링(IDE) 과정을 밟고 있는 한 대학원생의 75페이지짜리 졸업 논문이었다. 제목은 'The Design of a New Folding Bicycle.' 미니 벨로(Mini-Velo, 휴대 가능한 작은 자전거)의 세계에서 브롬튼(Bromton)과 더불어 접이식 자전거(Folding Bike) 분야의 스타 브랜드인 스트라이다(Strida)의 발명 초안이었기에 화제가 된 것이다. 발명가가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 일일이 풀어야만 공학적 계산식, 초기 프로토타입의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들어 있는 발상의 보고였다. 놀라운 점은 여기에 공개된 초기 모델이 스트라이다의 최신 버전과 비교해도 70%가량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디자인 학교에서 개념 자체의 질보다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 능숙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더 치중하고 있다. 인체 공학, 마케팅,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것'을 시장의 상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요소들에 대해 충분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스트라이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에릭(Eric)이라는 디자이너는 댓글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이 논문에 포함된 참신한 발상이야말로 '진정한 디자인'이라는 감탄을 쏟아냈다. 자전거 왕국 네덜란드에 산다고 밝힌 이반(Ivan)이라는 인물은 "스트라이다는 지금껏 나온 폴딩 바이크 디자인의 최고봉이며 자전거 전체를 통틀어서도 톱 10에 든다고 본다"고 했다. 이토록 강도 높은 찬사를 받은 주인공은 마크 샌더스. 국내에서도 스트라이다 동호회에 소속된 열혈 팬들의 지지를 받아온 그는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체인 없는 전기 자전거 만도 풋루스(Mando Footloose)를 선보여 한층 더 폭넓은 대중의 사랑과 인지도를 누리게 됐다.

바닷가 마을에서 '1인 기업'의 삶을 즐기는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이제는 50대의 관록을 보여주는 마크 샌더스는 단순한 신입 디자이너라기보다 발명가라는 칭호가 더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아니, 단지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본인의 이기적인 '창조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잠재 수요에 뿌리를 둔, 진정 쓸모가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개발하고,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발명'하는 사업가라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었다. 마크 샌더스는 수많은 '아이디어맨'들이 보여온 흔한 행보처럼 크고 작은 기업이나 스튜디오를 세우거나,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과는 달리 개념을 잡는 일에서부터 연구, 테스트를 통한 개발까지 거의 모든 걸 혼자 꾸러나가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규모를 추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하고 싶었어요. 설레부터 부품을 다루는 일, 디자인까지 전부 다 아우르며 기계와 씨름하는 소소한 재미와 도전엔 진심으로 즐기거든요." 잉글랜드 남부 도셋 지방의 고요한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한적한 마을 풀(Poole)에 자리를 잡고 MAS 디자인 프

로젝트라는 스튜디오를 혼자 꾸러나가고 있는 샌더스. 기자역까지 몸소 마중 나온 그는 아끼지 않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시내를 거쳐 스튜디오로 안내하며 동네 자랑하기에 바빴다. 좁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조깅을 하기에 더없이 이상적인 환경. 아름다운 풍광이긴 해도 웬지 모르게 적적할 듯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란다. "프랑스 약사인 아내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거의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면 엄청 바쁘지요. 게다가 이곳저곳 출장을 다니고요." 부부만 단란하게 살고 있는 아담하고 소박한 2층집은 바다를 앞뜰처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1층 안쪽에 들어선 작업실 책상에 앉아 은은한 푸른빛 바다를 향해 툇된 정면의 유리 없는 작은 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일부러 벽에 구멍을 뚫어요. 현관 벽에도 큰 창이 있어 바다가 보이거든요. CAD 작업을 하다가 한 번씩 풍경을 내다보면 기막힌 휴식이 되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든다, 발명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열망

이러한 전전후 1인 사업가로서의 소양과 성향은 부분적으로는 RCA-임페리얼 시절부터 깨닫고 습득한 노하우 덕분인 듯하다. 물론 그도 처음엔 대기업에 몸담으면서 전도양양한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교사 부모를 둔 집안의 장남이었던 그는 버크셔 주 셰필드의 철강업체 수석 엔지니어였던 조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기계류에 관심이 무척이나 많았다. 과학에 매료된 소년이었지만 예술도 몹시 사랑했다는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기계공학을 택했다. 명문 임페리얼 공대를 졸업한 그는 롤스-로이스 계열의 엔지니어링 기업이었던 앨런스(Allens)에서 일하다가 대형 식품업체 민스(Mars)로 옮겨 밴딩 머신



사진: 김지혜, M&S Design Products Ltd.

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디자인 컨설턴트들을 접하다가 속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마침 앨런스 시절 동료의 부친이 다용도 목공 작업대와 명차로 꼽히는 로터스 엘란 등을 선보인 록 헤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동시에 다루는 '발명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품던 시기였다. "직업의 세계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새 꿈이 생긴 마크 샌더스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좋은 직장을 나와 RCA 진학을 감행했다. 게다가 당시 그는 최고의 디자인 컨설팅업체인 IDEO의 전신 ID TWO에 몸담을 기회도 잡았다고 했다. "고민하고 있던 저는 IDEO 창업자인 빌 모그리지를 만나고 결심을 굳히게 됐죠. 그는 제 얘기를 자세히 들더니 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진솔한 조언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RCA의 IDE 과정은 삼각형의 꼭짓점을 잇듯이 디자인과 기술, 비즈니스의 조화로운 혁신을 추구했기에 그에게 엄청난 자선이 됐다. 접이식 자전거 프로젝트는 기술적, 미학적 욕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원했던 그에게 '하늘의 계' 시와도 같았다. 하지만 우연한 영감이 아니라 25마일(약 40km)이나 되는 통학 거리가 골치였던 그의 절실한 필요를 바탕에 깔린 것이었다. 버스는 느렸고, 모터사이클은 위험했으며, 사이클링은 체력 소모가 너무 컸다. 기차는 편했지만 2가지를 걸어야 했다. 접어서 기차에 실을 수 있는 폴딩 바이크가 좋을 듯했지만 가볍고, 편안히 탈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한 상품을 찾을 수 없었다. 직장 경력이 있었던 만큼 그는 시장성도 갖춘 프로젝트를 원했기에, '이보다 안정맞춤은 없다고 판단했다.'

폭넓게 진행되는 '발명 스펙트럼', 그 공통분모는 디자인과 기술의 우아함

스트라이다 프로젝트에 열정을 불사르게 된 또 다른 동인은 당시에 모터사이클 사고를 당한 남동생의 아이없는 죽음이었다. 위험한 모터사이클링보다는 일상에서 손쉽게 애용할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의 발명이 그에게 운명 과도 같은 과제로 다가왔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의 전일 교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세기도 전에 나온 자전거에 얼마나 혁신을 덧붙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수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의 접이식 자전거가 실제로 확실한 특징점을 갖추도록 하는 데 더욱더 열중했다. 당시에 나와 있던 폴딩 바이크는 몸집이 꽤 육중한 데다 사실상은 반만 접히는 '못생긴'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수없이 많은 스케치와 실험을 통해 그는 마침내 스트라이다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우아하게 삼각형으로 접히는' 꼴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무게 9.97kg의 매끈한 폴딩 바이크는 1년 반 뒤, 시장에 내놓자마자 호응을 끌어들였다. 이처럼 디자인과 기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멋진 하모니를 이룬 히트작을 선보였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큰 부를 얻지는 못했다. 20대 초반의 청년에게는 제조업에 뛰어들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지금 스트라이다에 대한 모든 지적제산권은 대만 업체인 밍 사이클에 귀속돼 있다). 그렇지만 각종 디자인상을 휩쓴 스트라이다의 성공은 최소한 직업적인 발명가로서의 행보에 물꼬를 터주었다. 마크 샌더스는 RCA-임페리얼 시절에 체득한 디자인과 기술의 우아함(elegance)이라는 신조를 이어가며 다른 영역에도 도전했다. 그중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작품은 '접이식 도마(No-Spill Chopping Board)'. 양쪽 날갯죽지를 안으로 접으면 식재료가 쏟아지지 않게 잘 모아주는 이 도마는 인기를 끈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이 도마의 후속 버전인 '칩2팟(Chop2Pot)'은 국내에서도 접할 수

Just for you

장인들의 섬세한 세공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은 그 무엇보다 오랜 믿음과 사랑의 감정을 전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 가격이 합리적인 2백만원대 이하 주얼리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운데 아래부터 시계 방향) 세 가지 컬러의 골드를 사용한 트리니티 모티브를 드롭 이어링으로 표현한 스위트 트리니티 이어링, 2백50만원대 **가르미에**, 하트 모티브의 레드 칼리 스위트 알렉산드라 하트 펜던트, 강렬한 광채를 내뿜는 레드 칼리 카탈리안 소재를 사용했다. 1백50만원대 **빈클리프 아펠**, 단단하게 묶어 풀리지 않는 매듭을 의자하는 리본 모티브의 누 브라운 컬러의 링, 1백70만원대 **루시에**, 티파니의 대표적인 디자인인 팔로마 파카스의 팔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그래픽 컬러의 링, 2백50만원대 **루시에**,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장미꽃을 표현한 로즈 컬러의 링, 꽃잎 하나하나를 피아제 주얼리 장인이 정교하게 세공했다. 2백30만원대 **피아제**, 파카스의 팔로마 파카스가 디자인한 베네치안 컬러의 스텔라 펜던트, 베네치아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2백만원대 **티파니**,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와 스티드를 장식해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 채리 플렌트 네크리스 2백60만원대 **타사키**, 브란드의 시그니처 컬러인 핑크 골드와 화이트 마더오브밀을 매치했는데, 뒷면에는 블랙 오톨스를 사용해 두 가지 디자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2백20만원대 **블가리**, 보석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유년크하게 완성한 채리 컬러의 링 2백50만원대 **타사키**, 부드러운 카보숑 컷 스톤을 우아하게 세팅한 메타메타인 에센 컬러의 링, 비아올렛 컬러는 옐로 골드 소재에 에미스트를 매치했고, 핑크 컬러는 옐로 골드와 로즈 퀴츠를 매치한 것이다. 각 2백만원대 모두 **블가리**, 화이트 골드로 만든 작은 원형 모티브에 브랜드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는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심플하고 아름다운 포제션 유우미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피아제**, 에디터 **베미진**

가르미에 1566-7277 타사키 02-3461-5558
 피아제 02-540-2297 블가리 02-2056-0172
 루시에 02-512-6732 티파니 02-547-9488
 빈클리프 아펠 02-3440-5660 에이스틴 02-515-1945



AMOREPACIFIC

ALL DAY BALANCING CARE SERUM



그린미라클이, 피부에 준 기적
 언제나 싱그럽게 피부 리듬을 지켜주는 ABC세럼

피부 리듬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기를 잃고 쉽게 지칩니다. 피부의 생기를 지켜주는 그린미라클 T™*로 더욱 새로워진 아모레퍼시픽 ABC세럼- 이제 아모레퍼시픽 ABC세럼으로 언제나 싱그럽게 깨어있는 피부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린미라클 T™
 *녹차에서 발간한 카로티노이드로
 활성 있는 피부를 유지해주는
 아모레퍼시픽의 혁신 성분입니다.



for her
THE GIFT

쉽게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가방부터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액세서리, 안티에이징 코스메틱, 봄을 느끼게 하는 향수까지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활용도 높은 선물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 포스타나 백, 38x24cm, 1백48만원 **자살라토**, 2 허탈 루몬산이 풍부한 에센스, 50ml, 15만5천원대 **에스티 로더**, 수블리마지 라 크렘 이오, 30ml, 21만원 **샤넬**, 암솔 퀴 프레스스 에센스 올레오-세럼, 30ml, 35만원 **랑콤**,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세럼, 30ml, 55만5천원 **아모레퍼시픽**, 3 오렌지워 핑크 베색의 풍성한 슴 70만원대 **루이비통**, 4 트워드 재킷 69만8천원, 블라우스 49만8천원, 스커트 30만원대, 목걸이 39만8천원 모두 **데리쿠니**, 5 고급스러운 수제 향초 4만9천원 **보드호**, 6 초록색 크리스탈 병글과 체인 네크리스 각각 34만원, 63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7 스트라이프 패턴의 코튼 재킷 45만5천원 **랄프 로렌 블루 라벨**, 8 레 배주 울안원 헬시 글로우 크림, 30ml, 7만원 **샤넬**, 알티 팔레트 양버 11만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9 브라운 프레이밍 선글라스 30만원대 **다미 F&S**, 10 코랄빛 스페셜 백, 34x29cm, 60만원대 **MCM**, 11 블랙 피아저 워치 94만원 **스와로브스키**, 12 블랙 펌프스 93만원 **생로랑 파리**.

자살라토 02-547-9700 루이비통 02-3432-1854 다미 F&S 02-546-7764
 MCM 02-2194-6700 생로랑 파리 02-3438-7627 랄프 로렌 블루 라벨 02-545-8200
 스위로브스키 02-777-2712 데리쿠니 02-6905-3398 보드호 070-8128-0937
 에스티 로더 02-3440-2772 샤넬 080-332-2700 랑콤 080-022-3332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조르지오 아르마니 080-022-3332

스타일링: 유현정 에디터: 이예진

DDI

DERERCUNNY

롯데 본점 4층 02-772-3488 / 롯데 잠실점 4층 02-2143-7422 / 롯데 평촌점 3층 031-8086-9326 / 롯데 중동점 4층 082-320-7390 / 롯데 신사당점 2층 02-222-8581 / 롯데 신촌점 4층 080-867-8670-5580
 롯데 대전점 4층 042-601-2454 / 갤러리아 압구정점 3층 02-6905-3398 /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층 042-720-6287 / 갤러리아 수원점 2층 031-223-8581 / 갤러리아 연세사거리점 2층 041-712-9225
 신세계 센텀시티점 3층 051-745-2750 / 현대 신촌점 5층 02-3145-2458 / 현대 충정점 2층 043-905-4270 / 서울리더스 본점점 02-777-9337



1. 다들 스트랩 워치 3백32만원 **에르메스**, 2. 옐로 컬러 패브릭 토트백, 28.5X19cm, 67만원 **프라다**, 3. 인슐린스 카를라 50만원대 **루이 비통**, 4. 90도로 회전되는 멀티 LCD와 원터치 스마트 폰 버튼을 탑재한 콤팩트 카메라 39만2천원 **캐논**, 5. 여러 개의 침을 달아 연출할 수 있는 필피 각각 1백4천9천원, 1백99만17천원 모두 **판도라**, 6. 알랑양꽃을 담은 향수 오 모젤리 100ml 16만8천원 **담타크**, 블랙베리 과즙을 담은 향수 블랙베리 앤 베이, 30ml, 8만원 **조 말론**, 싱그러운 자스민 워터 향수 몽 자스민 드와 로 엑스퀴즈, 50ml, 10만원 **불가리**, 7. 착용감이 좋은 플랫폼 슈즈 60만원 **토즈**, 8. 진한 그린 컬러 핸드백, 19.5X31cm, 2백75만5천원 **생로랑 파리**, 9. 옐로 컬러 슬리브리스 린피스와 플라워 프린트 카디건 각각 69만원, 45만원 모두 **올 스키스**, 보르도 컬러 핸드백, 25X19cm, 1백78만원 **까르띠에**, 10. 스타트 장식 지갑 18만8천원 **마이클 코어스**, 11. 방 타입 텍스처가 촉촉한 린스틱, 뉴 큐어 컬러 슈어 러시 린스틴 각각 3만8천원대 **에스티 로더**, 12. 네이비 컬러 약가죽 방글 74만원, 그린 컬러 가오리가죽 방글 각각 51만원, 80만원 모두 **판다**.

에르메스 02-542-6622 **프라다** 02-3218-5331 **판도라** 02-3479-6092 **판다** 02-2056-9023 **올 스키스** 02-3447-0278
까르띠에 02-544-2314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생로랑 파리** 02-3438-7627 **토즈** 02-3448-6008 **에스티 로더** 02-3440-2772
담타크 02-514-5167 **불가리** 080-990-8989 **조 말론** 02-3440-2750 **캐논** 1588-8133 **루이 비통** 02-3432-1854

사티엘리스트 유행정보 에디터 이예진

for her
THE GIFT



CÉLINE

WWW.CELINE.COM



for him
THE GIFT

중후하고 품위 있는 남성을 위한 클래식 아이템부터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이에게 어울릴 선명한 컬러의 트렌디한 아이템까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준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남성 선물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 자동차 모티브의 커피스 링크 17만원 **폴 스미스**, 2 남성용 캐리스트라가느까지는 보잉 선글라스 40만원대 **지형시 by 다리 F&S**, 3 잔차와 스파이먼트 향이 매력적인 레전드 스페셜 에디션, 100ml, 10212만원 **몽블랑 파퓸**, 진한 타바코 향의 블루트 오드 파퓸, 75ml, 19218만원 **담티크**, 민트, 세디의 파워풀한 향이 돋보이는 **진조 울트 스포츠**, 50ml, 7216만원 **진조 파퓸**, 4 경쾌한 블루 체크 패턴의 셔츠 78만원 **브리오니**, 5 베이스한 화이트 셔츠 192만원대, 패턴 니트 202만원대, 베이 지 컬러 재킷 60만원대 모두 **테드 베이커**, 6 들스가죽으로 만든 담배 케이스 11만 8천원 **일비종데**, 7 펜 클립의 주얼 장식이 럭셔리한 민트색 1125만원 **몽블랑**, 8 판정 디테일이 포인트인 가죽 신발 70만원 **에르메시빌도 제나**, 9 가죽 디테일이 세련된 니트 아우터 1백20만원, 체크 패턴 셔츠 42만원 모두 **버버리 브릿**, 10 가벼운 종이 소재 모자 18만원 **휴고 보스**, 11 크로카다일 데코 라이터 1백만원대 **까르띠에**, 12 울스킨 버클이 포인트인 1963 컬렉션 로퍼 75만원 **구찌**, 13 비스듬히 나열된 인덱스가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아쇼 워치 5백만원대 **에르메스**, 14 클래식 한 디자인과 가죽 소재가 고급스러운 엠도 백, 37X37cm, 7백만원대 **에르메스**.

폴 스미스 02-3447-0278 **다리 F&S** 02-513-2389 **브리오니** 02-6905-3760 **구찌** 1577-1921 **에르메스** 02-542-6622 **휴고 보스** 02-515-4088 **버버리 브릿** 02-3485-6536 **에르메시빌도 제나** 02-511-0285 **일비종데** 02-548-2992 **몽블랑** 02-3485-6627 **테드 베이커** 02-310-1556 **까르띠에** 1566-7277 **몽블랑 파퓸** 080-800-8809 **진조 파퓸** 080-344-9500 **담티크** 02-514-5167

스타일링: 이태리, 박유진

DRIVE
TO A
DIFFERENT
BEAT
CONTINENTAL
GT V8

The new Bentley Continental GT V8은 짜릿하고 세련된 드라이빙을 약속합니다. 8단 변속기가 엔진의 속도를 부드럽게 끌어올리면 엔진의 회전 속도는 이내 거친 울음에서 경이적인 포효로 탈바꿈합니다. 4.0리터의 트윈터보엔진이 4바퀴 모두에 전달하는 웅장한 소리에서 제로백 4.8초의 완벽한 스포츠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어떤 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벤틀리입니다.

DIFFERENTLY DRIVEN.



BENTLEY SEOUL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8
문의 02 3448 2700
www.bentleyseoul.com

BENTLEY BUSAN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41-2
문의 051 747 7007
www.bentleybusan.com



[차종 및 표준연비] Continental GT V8 (변속기: 자동 8단, 배기량: 3,993cc, 공차중량: 2,333kg, 복합 CO2 배출량: 240g/km, 복합연비: 7.5km/ℓ (도시연비: 6.3km/ℓ, 고속도로연비: 9.9km/ℓ), 등급: 5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Bentley' 명칭과 'B' in wings는 등록상표입니다. © 2011 Bentley Motors Limited. 해당 차량모델은 Continental GT V8 유럽 사양입니다.



1 그린 컬러의 더블 스트랩 캠퍼스 백, 37X34cm, 1백57만원 **토즈**, 2 소
가죽으로 위빙한 세일러 브레이슬릿 각 30만원대 **오메가**, 3 네온 컬러가 감각적
인 스니커즈 가격 미정 **제나 스포츠**, 4 와이퍼와 광학 8배 증 시스템을 탑재
한 익시스 135 콤팩트 카메라 22만원대 **캐논**, 5 코임 장식의 코튼 벨트 50만
원 **키온**, 6 비비드한 컬러가 신뜻한 가죽 지갑 각 40만8천원 **랄프 로렌**
블랙 라벨, 7 부드러운 들소가죽으로 만들어 자연스러운 차림이 멋
스러운 백백 1백19만원 **일비종매**, 8 주름 개선, 탄력 증진, 보습 효
과까지 한 병에 담은 포스 수프림 유스 아크티브 세럼, 50ml, 8만
2천원대 **비오렐 울트**, 비타민 C- E와 카페인 성분을 함유해 피부
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웨이셜 퓨얼 모이스처라이저, 125ml,
4만5천원대 **키엘**, 만도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맨 수퍼 모이스처 젤, 50ml, 5만1천원 **클라란스**, 9 39.6cm의
HD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페블 블루 컬러의 시리즈3 노트
북 78만원 **삼성전자**, 10 그래픽 티셔츠 25만원, 브라운 재킷 1백
33만원, 에스닉한 패턴의 스카프 33만원 모두 **휴고 보스**, 11 선
명한 옐로 컬러의 헤드셋 44만원 **뱅앤올룹슨**, 12 플라밍고 자수
패턴이 화이트 있는 팬츠 17만7천원 **테드 베이커**.

토즈 02-3448-6008 오메가 02-511 5797 제나 스포츠 02-511-0285
캐논 1588-8133 키온 02-6905-3787 휴고 보스 02-515-4088 테드 베
이커 02-310-1556 뱅앤올룹슨 02-518-1380 일비종매 02-548-2992
랄프 로렌 블랙 라벨 02-545-8200 삼성전자 1588-3366 비오렐 울트 키엘
080-022-3332 클라란스 080-542-9052

스타일링: 김유정, 헤어: 김유진

for him
THE GIFT



inpres X C's

핀을 향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아름다운 샷!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야마하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세계 항상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for kids
THE GIFT

봄나들이를 위한 화사한 원피스와 신발을 비롯해 활용도 높은 머플러와 벨트, 상상력을 키워줄 캐릭터 장난감과 케이스 등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 활동성 높은 그레이 컬러 운동화 18만8천원 **폴 스미스 주니어**, 2 카라티가 그려진 블루 컬러 워치 4만5천원, 주황색 라퍼 밴드 워치 6만1천원 모두 **폴리플라카 코리아**, 3 오렌지와 네이비의 경쾌한 배색이 돋보이는 코트 벨트 4만5천원, 브랜드 로고를 수놓은 사신 패턴의 레드 컬러 보타이 4만5천원 모두 **빈폴 키즈**, 4 도트 무늬 셔츠 15만3천원, 네이비 도트 타이 9만원, 그레이 재킷 33만 원 모두 **폴 스미스 주니어**,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21만8천원, 짜임이 출중한 니트 카디건 13만8천원 모두 **자카디**, 5 수납공간이 다양하게 나눠 있는 우드 케이스 48만원 **살메티 by 비아커**, 새 모티브의 나무 인형 각각 17만원 **다스플린 by 더플레이스**, 6 환절기나 서늘한 장마철에 두르기 좋은 가벼운 체크무늬 머플러 6만8천원 **자카디**, 7 가슴 부분에 자수를 상세하게 수놓은 원피스 58만8천원 **벨브앙**, 8 8각형 프레임 선글라스와 꽃무늬 프레임 선글라스 모두 2만3천원 **겍 키즈**, 9 키스 해랑의 작품이 그려진 아이패드 케이스 **MSY by 10 포르소 코오**, 10 화이트 컬러 여름 신들 30만원 **구찌 힐드런**, 11 오브제 장난감 18만원 **아트 토이즈 by 10 포르소 코오**, 12 가볍게 메기 좋은 브라운 컬러 가방, 17X13cm, 11만8천원 **빈폴 키즈**.

폴 스미스 주니어 02-2143-7996 **자카디** 02-3442-5870 **빈폴 키즈** 02-2076-7627 **10 포르소 코오** 02-3018-1010 **구찌 힐드런** 1577-1921 **비아커** 02-543-1270 **겍 키즈** 02-310-1976 **폴리플라카 코리아** 02-3149-9549 **더플레이스** 02-3444-9595 **벨브앙** 02-3444-3356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에디터 이예진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5월 한정] 여름휴가 미리 예약하고, 가볍게 떠나자! 클럽메드

조기예약 BIG BONUS 2 성인 125만원대 부터
에어패키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가격)

발리, 푸켓, 빈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체러팅 비치, 오키나와 카비라 비치, 몰디브 카니

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3452-0123
www.clubmed.co.kr

Bag Stage

이번 시즌 여심을 흔들 잇백(It Bag)은 무엇?
패션 하우스들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2013 S/S
뉴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그린 레이스 원피스, 옐로 메탈 스트랩 액세서리, 옐로 메탈 이펙트 케이스 모두 **버버리 프로섬**, 브라운 컬러 오치드 백 **버버리**, 그린 컬러 이어링 **에어리스 by MIK 24/7**, 화려한 크리스탈 네크리스 **소록 by 빈자크**, 플라워 모티브 링 **파버리쉬**.



누드 톤 슬리브리스 원피스 **량방**, 골드 스테드 장식 숄더백, 크리스탈 장식 쿠티르 토트백 모두 **토즈**, 드롭형 이어링 **조그마 by MIK 24/7**, 플라워 브레이슬릿 **에어리스 by MIK 24/7**.



블랙 러플 화이트 원피스,
브라운 파이톤 리지 33백,
모두 **할프 로렌 컬렉션**.
볼드한 크리스탈 링
스와로브스키 엘리먼트.



화이트 보디수트, 체크 패턴
사스루 롱 스커트, 핑크
베르니 몽소 솔더백, 그레이 컬러
터피타이지 스웨이드 스피디
큐브백, 옐로 터피타이지
스웨이드 스피디 큐브백, 다크
블루 스트랩 샌들 모두 **루이 비통**.
해골 모티브의 태슬 이어링과 골드
링 모두 **에어리스 by MIK 24/7**.



네이비 스텝글 디테일의
 셔츠와 팬츠, 블랙 & 레드
 컬러 토트백 모두 **칼로에**.
 T 스트랩 플랫폼 슈즈
생로랑 파리, 원뿔 모티브의
 아이링 **미네타니**, 스티드
 장식의 링 **보테가 베네타**.



블랙 & 옐로 프린지 장식의
 슬리브리스 원피스,
 그래픽 패턴 토트백,
 모노 체크 클러치,
 그린 컬러 벨글 모두 **켄디**.
 블랙 아이링 **스와로브스키**.



네이비 원피스, 화이트
페플링 에이프란, 플라워
패턴 아이보리 토트백
모두 **프라다**, 플라워 모티프
이어링과 브레이슬릿
모두 **피버리쉬**.

코발트 블루 재킷과 팬츠,
스카이 블루 셔츠, 레드 컬러
슬다백, 오렌지 컬러 토트백
모두 **에르메스**, 베이지 &
블랙 플랫폼 샌들 **토즈**,
롱 네크리스와 블루 크리스탈
링 모두 **스와로브스키**.



모델 스테파니
헤어 한지선
메이크업 김은주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인
에디터 권유진

랑방 02-6905-3496
반지크 02-3446-5681
렌디 02-2056-9023
토즈 02-3438-6008
프라다 02-3218-5331
피버리쉬 02-790-3041
루이 비통 02-3444-1727
MIK 24/7 02-3446-8556
에르메스 02-544-7722
말프 로렌 컬렉션 02-545-8200
골로에 02-6905-3670
생로랑 파리 02-3438-7627
미네타니 02-3443-4164
보태가 베네타 02-515-2717
버버리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
02-3444-2144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desirable Comfort

인체 공학의 정수와 함께 안락함을 절로 자아내는 디자인을 품고 있어야 하는 일상의 가구. 잠을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 침대는 이처럼 '편안한 럭셔리'의 미덕을 갖춰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쾌면의 도구이다. 천연 소재들을 가득 담은 우아한 디자인에 탄력도가 출중한 특수 스프링 시스템까지 갖춰 영국 왕실에서 애용한다는 수공 침대 브랜드 바이스프링(VI-spring)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야말로 탐나는 물건이다. "사물의 디자인에는 사회상이 반영되고, 기술이 남기는 흔적도 보이며, 정서적인 가치도 담겨 있다"는 영국 문화계의 지성 대안 수직의 주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매혹의 대상인, 장인 정신이 깃든 특별한 침대를 소개한다.

영국 왕실이 사랑해온 장인 기업의 침대 브랜드, 윌리엄 왕자 결혼에도 낙점
 '질 좋은 잠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눈물겹다. (잠의 즐거움)'이란 책을 보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새벽 2시에 착유해 '숙면 호르몬'으로 통하는 멜라토닌의 함유량이 일반 우유보다 서너 배가 많다는 '나이트 밀크'가 애용되고 있을 정도라니 말이다. 숙면과 침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쟁도 많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쾌면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잠드는 환경'의 개선을 꼽는다. 어쩌서 계절마다 유행이 바뀌는 옷과 구두에는 거리낌없이 투자하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하는 침구에는 돈을 아끼려는 지적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불면을 호소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치 이 같은 조언을 받아들여듯, 침실 환경에 적극 투자하는 진정한 웰빙족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보인 영국의 침대 브랜드 VI-spring(바이스프링)은 쾌면의 토대를 찾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하다. 연력이 1백 년이 훌쩍 넘은 런던 영국 왕실의 직계가족이 오랫동안 애용해온 브랜드라면 단지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었다. 1901년에 설립돼 오로지 침대 만들기의 내공을 쌓는 데 주력해온 바이스프링은 수직업을 기반으로 한 장인 정신으로 톱톱 명진 전문 기업이다. 단순히 럭셔리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최적의 수면 환경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내세운다. 타이타닉, 칸베리 같은 고급 유람선을 공급하며 최고의 침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온 이 회사는 2011년 케이트 미들턴과 윌리엄 왕자의 결혼 당시 특별 제작한 침대를 제공함으로써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에만 주어진다 '퀸스 어워드(Queen's Award)'를 받기도 했다.

천연 소재와 첨단 기술, 디자인을 아우르는 쾌면의 미학
 도대체 바이스프링을 차별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선, 탄력도가 뛰어난다는 개별 포켓 스프링(Pocketed Springs) 시스템을 최초로 고안한 이 브랜드는 m당 9백40개에 이르는 스프링을 매트리스에 사용해 질적인 차이를 달리한다. 또 침대 스프링이 여섯 번 회전해 가장 이상적인 팽팽함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로마자로 숫자 '6'을 뜻하는 바이(VI)가 브랜드명에 들어가 있는 이유다. 게다가 저마다 다른 체형과 몸 상태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스프링뿐만 아니라 내구재, 매트리스 커버, 심지어 스티칭까지 주문 제작하는 '베이드 루오티' 방식을 고수한다. 맞춤 제작인 만큼 스프링의 강도를 '소프트(soft), 미디엄

(medium), 펌(firm), 엑스트라 펌(extra firm)' 등 4단계 중 택일할 수 있다. '천연'을 지향하는 소재의 철학도 브랜드 경쟁력을 지탱하는 주요 자산이다. '침대를 숨 쉬게 한다'는 기치 아래 라텍스나 합성섬유를 일절 쓰지 않고 캐시미어, 모헤어, 대나무, 실크, 그리고 오스트리아 무스버거 지역의 말총 등 최고의 자연 소재만을 엄선해 사용한다.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의 '셴틀랜드(Shetland)'에서 생산되는 최상급 순양모는 바이스프링만의 특징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최고급 울(wool) 베드의 장점은 보온, 보습, 안락함, 통풍 등 침대의 4대 덕목을 골고루 갖췄다는 것이다. 바이스프링은 또 포켓 스프링을 감싸는 천으로 천연 칼리코(calico) 면을 사용하는 등 고급스러움을 만큼 '내추럴'을 추구한다.
 이 브랜드의 최상위 라인인 '매그니피센트(Magnificent)'는 이 모든 소재들을 풍부하고, 적절하게 적용한 '침대 미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포켓 스프링이 촘촘히 들어 있는 2개 층으로 이뤄진 견고하고도 안락한 매트리스,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8시간에 걸친 '밴드 스티칭' 작업을 가미한 5줄의 선 덕분에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바이스프링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인피니(Infini)' 관계자는 "최상의 천연 소재와 기술을 근간으로 한 만큼 10~20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지녔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침대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스프링의 경우에 소재의 구성이나 디자인, 스프링 강도 등을 맞춤형으로 선택해 나만의 침대를 디자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건이다. 수면의 과학을 추구한다면 한 점 부끄럼 없는 침대 철학을 표방하는 이 브랜드의 제안에 한 번쯤 귀 기울여볼 만하다. 문의 02-3447-6000 www.infini.co.kr **에디터 고성연**



Dazzling propose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 손가락 위에 우아하게 피어오른 아름다운 장미 '루시'에 로즈 클래식'은 그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한다. 루시가 제안하는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프리포즈, 로즈 클래식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특별한 순간을 위한 오직 하나뿐인 주얼리, 루시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디자인,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하이 퀄리티의 다이아몬드로 취향이 고매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본 명품 플래티넘 주얼리 브랜드 루시에(Lucie). 루시에의 주얼리를 선택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장 먼저 꼽는다. 루시에만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공 기법으로 탄생한 주얼리는 한번 착용해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특별함에 매료된다는 것. 2002년 일본 도쿄에서 탄생한 루시에에는 특별 주문 제작 시스템을 통해 '컨템퍼러리 오트 쿠튀르 주얼리'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 입지를 굳힌 하이 주얼리 브랜드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주얼리를 소유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와 개성을 만족시키는 특별 주문 제작 시스템, 그들이 보유한 다양한 독창적 디자인은 루시에가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이유이자 그들만이 지닌 특별함이다.

한 송이의 장미, 로즈 클래식 컬렉션

루시에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는 아름다운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무드를 극대화한 '로즈 클래식 컬렉션'이다. 이는 옐로 골드, 플래티넘, 장미빛으로 물든 듯 매혹적인 로즈 골드와 GIA 등급의 영롱한 다이아몬드, 그리고 밀그레인 세팅이 조화를 이룬 섬세한 디테일이 특징이다. 행복이 넘쳐 흐르는 장미꽃 바구니를 모티브로 한 파디에, 장미 꽃잎을 섬세하게 표현한 페달, 아름다운 레이스 디테일의 코르셋, 장미의 가치와 그 끝에 핀 장미에서 영감을 받은 브랑슈 등 장미를 소재로 한 13가지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즈 클래식 컬렉션의 모든 아이템은 레이아웃해 서로 믹스 매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단품으로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또는 여러 아이템을 믹스해 화려하고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밴드 가장자리와 꽃잎 모티브에 사용된 엔트릭한 느낌의 밀그레인 기법은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완성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또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세공과 세팅법을 적용해 손에 착용했을 때 눈부시게 반짝이는 광채를 느낄 수 있을 것. 루시에의 로즈 클래식 컬렉션은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경기점, 현대백화점 목동점·신촌점·대구점, 롯데백화점 본점·청량리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2-6732 **에디터 권유진**



(왼쪽 장미꽃 위부터 차례대로) 장미 꽃바구니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사랑스러운 꽃이 핀 듯 화사함을 더해주는 파디에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80만원대, 장미 꽃잎을 형상화한 섬세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느낌을 연출한 페달 플래티넘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60만원대, 가지 끝에 핀 한 송이 장미꽃처럼 우아하고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브랑슈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슬리퍼링 2천2백만원대, 밀그레인 기법으로 섬세하게 장미 꽃잎을 연출한 코르셋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60만원대 모두 루시에. (오른쪽 장미꽃 위부터 차례대로) 프랑슈 록부외 거대한 탐과 약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클로세 로즈 골드 슬리퍼링 다이아몬드 링 2천6백만원대, 섬세한 꽃바구니 디자인과 엔트릭한 밀그레인 기법이 여성스럽고 유니크한 파디에 플래티넘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90만원대, 장인들의 섬세한 세공이 엿보이는 디자인으로 클로세 슬리퍼링과 매치하면 더욱 아름다운 클로세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만원대, 아름다운 레이스의 표면을 연상케 하는 코르셋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60만원대, 밴드 가장자리 부분을 섬세하게 조각해 엔트릭한 아름다움을 더한 파르미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30만원대, 흘러넘치는 장미의 향기를 표현한 파르미 로즈 골드 슬리퍼링 다이아몬드 링 2천2백만원대, 장미의 가치를 연상케 하는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브랑슈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30만원대 모두 루시에.

No.1 foundation

수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극찬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있다. 하루 종일 결집 없이 지속되는 완벽한 피부를 위한, 10cm 앞에서도 자신 있는 롱 래스팅 파운데이션 에스티 로더 더블 웨어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극찬하는, 여배우 파운데이션

화장품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는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여배우다. 수많은 제품을 접하는 이 특별한 소비자들 사용하는 제품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수십년간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지켜온 에스티 로더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은 이 까다로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여배우를 모두 만족시킨 제품이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여덟 가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은 다양한 컬러를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미묘한 피부 표현에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다. 다양한 색상 덕분에 모든 여성의 피부 톤에 딱 맞도록 쉘 톤과 쿨 톤, 감추고 싶은 부위 등 어떤 피부든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여배우들이 이 제품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15시간 이상 지속되는 롱 래스팅 기능 때문이다. 오일 프리 포뮬러를 사용해 쉽게 번들거리거나 묻어나지 않는다. 지속력이 뛰어난 파운데이션 중에는 심하게 말리거나 텍스처가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은 역사 깊은 에스티 로더의 오랜 노하우로 이러한 단점들을 모두 개선했다. 끈적이지 않으면서 밀착력이 뛰어나고 무게감 없이 가벼운 텍스처는 물과 습기에 강하다. 향료를 첨가하지 않아 피부 자극도 적다. 직접 사용해본 여성들은 톱탑함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커버력까지 뛰어나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린다. 브러시로 바르면 풍부한 윤기를 표현할 수 있고, 피부에서 은근한 빛이 느껴진다. 가벼우면서도 커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굳이 다른 제품과 섞어서 사용할 필요 없이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기초 스킨케어만 꼼꼼히 해준다면 완벽한 지속력을 느낄 수 있다. 가벼운 텍스처 덕분에 손으로 펴 바르기도

쉽다. 스펀지, 브러시 그 어떤 도구와도 궁합이 좋다. 밤에 외출할 때는 평소보다 한 톤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세분화된 다양한 컬러군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더 극적인 효과를 얻고 싶다면 같은 라인의 에스티 로더 더블 웨어 컨실러를 사용해 눈 밑 밝히고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생기 있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더블 웨어 스테이-인-플레이스 메이크업 SPF 10/PA++ 30ml 6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2 에디터 **배미진**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은 소량만 사용해도 결집 없는 피부로 연출해준다.

여배우 메이크업 시 필수 아이템이다." **_by 김활민(뮤제메코 원장)**

"에스티 로더의 더블 웨어 스테이-인-플레이스 메이크업 SPF 10/PA++"은 여배우 메이크업 시 꼭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다.

_by 박태윤(메이크업 아티스트)

"평소 여배우들의 메이크업에 즐겨 사용한다. 더블 웨어에 메이크업하면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여배우들의 피부결이 좋아 보인다."

_by 서희영(세니하우스도산점 원장)

"붉은 기를 가라주어 피부 톤을 완벽하게 보정해주며, 지속력까지 뛰어난 매우 훌륭한 파운데이션이다."

_by 손대식(메이크업 아티스트)

complete Protection

살뜻하면서도 촉촉하고, 가벼운 커버력을 갖춘 것은 물론 피부를 실크처럼 부드럽게 감싸줄 좋은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한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인식이 날다를 여성에게, 안티에이징 기능으로 피부 안팎을 동시에 보호하는 샤넬 수블리마지 라인만의 새로운 차단제를 추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장인 정신으로 완성하는 하이엔드 코스메틱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는 고귀한 성분과 기술력을 담은 하이엔드 라인을 갖추고 있다. 패션을 비유하자면 최고의 소재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완성하는 오토 쿠티르에 비교할 수 있겠다. 샤넬 코스메틱의 정점을 상징하는 하이엔드 라인은 '수블리마지(Sublimage)' 컬렉션이다. 은은한 골드빛 패키지에 담긴 촉촉하고 영양가 가득한 크림과 세럼은 물론 밤 사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바꾸어주는 마스크 제품까지 2009년 첫선을 보인 이래로 샤넬 코스메틱을 대표하는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블리마지가 특별한 이유는 남다른 성분 때문이다. 샤넬 수블리마지 라인의 핵심이 되는 성분은 사치스 제품 주위에 놓인 2장의 초록빛 사진에 담겨 있다. 오른쪽 프레임에 담긴 청초한 꽃과 왼쪽 아래의 진액이 흘러내리는 초록색 줄기는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땅, 야생성 마다가스카르에서 자라는 귀중한 식물, '바닐라 플레니폴리아'다. 일명 '그린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바닐라 플레니폴리아는 북부 마다가스카르 섬의 여인들이 신성한 바닐라 고투리로 재생육이 뛰어난 페이스 마스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샤넬 안티에이징 연구팀이 전 세계 1백17종의 바닐라 중 발견한, 안티에이징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바닐라종이다. 열매를 따고 과즙을 추출하고 농축해 황금빛 리퀴드를 완성하는데, 바닐라 플레니폴리아를 농축한 이 액체가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 있게 완성하는 핵심이다. 샤넬은 이 특별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자외선 차단제에도 적용했는데, 바로 샤넬 수블리마지 라 프로텍시옹 UV SPF 30/PA+++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실크처럼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

수많은 브랜드에서 가볍고 촉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샤넬 수블리마지 자외선 차단제는 그 수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손등에 덜어내는 순간 상쾌한 향기가 코를 스치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자외선 차단제의 질감은 마치 에멀션이나 크림과 같은 수준의 촉촉함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 어떤 자외선 차단제보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단연 앞서 있다. 크림만한 텍스처가 실크처럼 가볍게 피부를 감싸는데, 바르고 난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다. 가볍게 발리기 때문에 지속력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심이다.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 필터와 독자적인 차단 효과를 갖춘 UV 복합체를 함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복사에너지에 의한 피부 조직 중심부 손상까지 이중으로 방지해주고 촉촉한 텍스처 자체가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이다. 수블리마지 라인의 자외선 차단제인 만큼 안티에이징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바닐라 플레니폴리아가 피부를 재생시키고 감초 뿌리 추출물 이디크 스폫트를 예방해 고른 피부 톤을 얻을 수 있다. 튜브형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지 않기에 오후 시간에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두껍게 발리는 자외선 차단제, 바를수록 밀리는 텍스처 대신 차단 기능, 지속력, 촉촉함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감을 얻고 싶은 여성에게 추천한다. 샤넬 수블리마지 라 프로텍시옹 UV SPF 30/PA+++ 30ml 13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배미진**

Sparkling time

최첨단 스위스 위치의 전문성과 정교한 크리스털의 광택을 결합시킨 스와로브스키 위치가 2013년 뉴 컬렉션을 선보인다. 올해로 다섯 번째 참석하는 세계적인 시계 전시회 바젤 월드에서 소개하기 전 국내에 미리 공개하는 이번 위치 컬렉션은 스와로브스키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스와로브스키 위치의 놀라운 진화

1895년 론칭한 이후 정교한 크리스털 커팅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패션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스와로브스키는 주얼리만큼이나 위치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스위스 위치메이커의 전문적인 기술력에 크리스털을 다루는 정밀함을 결합한 창조성은 스와로브스키의 충성도 높은 고객은 물론 위치 마니아들을 매료시켰다. 스와로브스키의 위치 컬렉션은 론칭과 동시에 바젤 월드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패셔너블한 디자인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스위스 위치의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바젤 월드(Basel World)'는 세계와 주얼리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최대 박람회로, 바이어와 프레스는 물론 위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까지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다. 올해로 다섯 번째 참석하는 스와로브스키는 2013년 뉴 위치를 비롯해 주얼리도 선보일 예정인데, 바젤 월드에 소개하기 전 국내에서 먼저 러블리 크리스탈과 피아자, 인디라 위치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한다. 지난해 출시한 '러블리 크리스탈(Lovely Crystal)' 컬렉션은 다이얼 주위를 미끄러지듯 자유롭게 움직이는 16개의 투명한 지르코니아 스톤이 특징이다. 8시 방향에 위치한 작은 하트 스톤이 자개 다이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스테인리스 스틸과 옐로 골드 소재 브레이슬릿으로 세련미를 더했다. 대담한 다이얼과 화려한 스트랩으로 사랑받은 피아자 위치는 이번 시즌 미니 버전으로 선보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미니말한 사각 다이얼과 스트랩의 인디라 위치는 도회적인 세련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스톤 장식과 독특한 다이얼 등 차별화된 스와로브스키의 위치 컬렉션으로 패션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문의 02-3395-9096 **에디터 이혜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리스탈 스톤이 다이얼 주위를 움직이는 블루 컬러 스트랩 워치와 화이트 컬러 스트랩 워치는 모두 러블리 크리스탈, 각각 70만원, 80만원대. 사각 다이얼의 골드 스트랩 워치는 인디라 컬렉션, 63만원. 메탈 스트랩으로 세련미를 더하는 워치는 러블리 크리스탈, 98만원. 블랙 스톤과 다이얼이 강한 인パクト를 주는 워치는 스와로브스키의 베스트 이오 랩인 피아자 컬렉션을 재해석한 피아자 미니, 80만원. 레드 스톤 메시 스트랩과 화이트 스톤 메시 스트랩이 특징인 사각 다이얼의 엘리스 워치, 각각 94만원, 1백10만원. 자신의 개성에 맞는 청을 골라 나만의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하는 카펠리아 컬렉션, 가격 미정. 8백 개의 눈부신 크리스털을 세팅한 골드 스트랩과 진한 블루 컬러 스트랩 워치는 크리스탈인 컬렉션, 각각 51만원, 58만원. 작은 사각 형태의 블랙과 실버 다이얼 스트랩에 스톤을 세팅한 인디라 컬렉션, 각각 54만5천원, 53만2천원.



왼쪽 위부터 스와로브스키 워치 컬렉션

새로운 안티에이징 트렌드, 주름과 모공 케어
 요즘은 어딜 가나 피부 이야기뿐이다. 윤기에 대한 토론은 물론, 주름이 생기지 않게 피부를 관리하는 세안법이나 어린 피부를 유지하는 여배우들의 식습관까지 연일 포털 사이트에 오르내리며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본연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름을 케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눈가의 자연스러운 주름은 성형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너진 턱 라인과 비늘로 푹푹 찌어놓은 듯한 모공은 피부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원흉이다. 주름을 케어하는 것은 기본, 얼굴 라인이 날렵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탄력과 눈에 띄지 않는 모공,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까지 체계적인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해 키엘이 새로운 콘셉트의 안티에이징 라인을 출시했다. 주름과 모공에 탄탄한 힘을 채워 수많은 여성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파워풀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키엘 파워풀 크림과 아이크림이 바로 그것이다.

노화에 대응해 피부에 힘을 채우는 카피와 칼슘
 키엘이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 파워풀 크림과 아이크림을 선보이며 주목한 것은 미네랄 성분인 카피와 칼슘이다. 미네랄 성분의 화장품은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미네랄이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윤활제이자 촉매제로 활용되는데, 피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성분으로 활용된 것은 카피와 칼슘. 화장품 성분으로는 생소한 카피(copper)는 건강한 피부 유지를 위한 필수 미네랄이다. 카피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피부 재생과 미용을 위해 활용하던 성분으로,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뿐 아니라 피부 산화를 예방하고 흉터 조직을 회복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피부 수분막까지 보호하니 안티에이징 화장품 성분으로는 탁월하다. 칼슘은 피부 각질층 응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새로운 세포 생산을 촉진하고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물론 키엘의 신제품에 담겨 있는 카피와 칼슘 성분을 직접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더 빠른 피부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고 싶다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면 체내에 소화되어 흡수된 양 중 피부에 도달하는 양이 극소량이기 때문이다. 화장품을 통해 안정화된 미네랄을 직접 바르면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보다 높은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키엘의 다른 크림들의 제형이 모두 홀롤하듯, 파워풀 크림은 쫄쫄하고 탄력 있는 텍스처 덕분에 부드럽지만 피부를 조이는 듯한 힘이 느껴진다. 아이크림 역시 눈가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탱탱한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모공과 탄력 모두 완벽하게 케어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키엘 파워풀 링클 앤 포어 리두싱 크림 50ml 7만7천원, 파워풀 링클 리두싱 아이크림 14ml 6만3천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이혜진**



Powerful anti-aging

극도로 클로즈업된 여배우의 피부 컨디션이 인기의 척도가 되는 요즘, 오로지 주름만 해결한다고 좋은 피부라 할 수 있을까? 주름을 넘어 모공이 탄탄하게 조여진 탄력 있는 피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키엘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화장품, 파워풀 링클 리두싱 라인이 그 광광을 이루어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he super Serum

〈스타일 조선일보〉 애독자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수차례 소개된 기사가 입증하듯 아모레퍼시픽의 '올데이 밸런싱 케어 세럼'이 피부에 발휘하는 뛰어난 효능을 말이다. 올분, 그린미라클™ 성분을 더해 더욱 강력해진 ABC 세럼은 흐트러진 피부 리듬을 바로잡고 피부 속 콜라겐을 증진시켜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2012.4



2012.11



2012.5



피부에 꼭 필요한 베스트 기초 세럼, ABC 세럼
 왜 내 피부엔 왜 걸도느낌이 드는 걸까? 평소 피부 관리에 투자하고, 피부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해본 여성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에디터 역시 마찬가지다. 고가의 화장품도 사용해보고, 순화스러운 천연 제품도 사용해보았지만 피부가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기에 급급했지, 피부 속 근본을 케어하고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던 것. 작년에 기사를 준비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아모레퍼시픽 ABC 세럼의 효과를 실감하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피부 리듬과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업무 스트레스, 야근, 수면 부족 등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 중 피부 미인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만 잠을 설치도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듯 각종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피부 리듬이 깨져 트러블이 쉽게 생기기 때문.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부 리듬을 케어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올 데이 밸런싱 케어 세럼'이다." -〈스타일 조선일보〉 2012년 4월호, "피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토너 후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는 기초 세럼을 추가해볼 것. 부스팅 효과는 물론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아심작, 'ABC 세럼'은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부여한다." -〈스타일 조선일보〉 2012년 6월호. 이처럼 기사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ABC 세럼은 환절기,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으로 깨진 피부 리듬을 바로잡아 피부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피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럼이다. 이는 기능성 화장품처럼 잡티를 흐리게 하고 주름을 완화하는 제품이라기보다 모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근본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화장품에 시너지 효과를 주어 피부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이는 부스팅 효과의 세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입소문을 통해 출시 5개월 만에 아모레퍼시픽 세럼류 중 판매율 1위를 기록해 브랜드의 대표 세럼으로 등극한 ABC 세럼은 마니아 고객층을 위해 70ml 대용량 사이즈를 출시했으며, 작년 말엔 오사가 한류백화점 리뉴얼을 기념해 한정 수량 선판매를 진행, 론칭 3일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린미라클™이 피부에 준 기적
 이처럼 ABC 세럼이 단기간에 아모레퍼시픽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등극하고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까지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독자 연구에 대한 집념으로 탄생한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에 가능한 일. ABC 세럼의 대표적인 핵심 성분은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 무기질을 함유한 자작나무 수액과 머스크멜로 추출물로 이루어진 밸런시아이클 콤플렉스™다. 이는 피부 리듬을 조율하는 생체 시계인 Bmal1을 활성화해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해 하루 종일 윤기가 도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 또 노화에 치명적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염 효능으로 피부 트러블을 케어한다. 크나큰 사랑에 힘입어 이번에 리뉴얼해 선보이는 ABC 세럼은 기존의 밸런시아이클 콤플렉스™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녹차를 바탕으로 한 그린미라클™ 성분을 함유해 효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것이 눈에 띄는 강점. 녹차의 레티놀이라 불리는 그린미라클™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피부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피부 노화 징후를 예방하는 특효 성분이다. 육안으로 보거나 발랐을 땐 기존 제품과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확실히 피부가 더욱 촉촉해지는 것은 물론 모공을 조인 듯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워낙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인 데다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금세 붉어지던 피부가 ABC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트러블이 줄고 잠잠해진 것을 보면 그만큼 피부의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음을 실감한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빠른 흡수력이다.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신뜻하게 스며들고, 인간의 세포 구조와 흡사하게 이루어진 부스팅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흡수되어 효과 또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세안 후 두세 번 정도 펴평해 얼굴과 테팔레 라인까지 바른 뒤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것. 피부결을 정돈해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높여준다. 40ml 14만원, 70ml 20만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Perfect eyebrows

2장의 사진이 미묘하게 달라 보인다면, 눈썹에 주목하라. 왼쪽 사진은 본래 자연스러운 눈썹이고, 오른쪽 사진은 눈썹을 확장한 덕분에 인상이 훨씬 깔끔해졌다. 눈썹 윗라인을 보면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지금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를 찾는다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눈썹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photographed by lee jac chan*



이제 눈썹을 밀지 말고 확장하라!

눈썹 관리 참 어렵다. 눈썹 갈 하나만으로도 예쁜 눈썹을 만들기엔 역부족인 데다, 손질할 때마다 눈썹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는데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다. 한국 여성들은 눈썹을 민다고 표현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확장이 보편적이다. 눈썹을 갈로 밀면 모근이 두꺼워져 면도를 반복하는 남성의 수염처럼 단단해지는 것은 물론, 피부 각질이 일어나 화장까지 밀리기 일쑤다. 게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눈썹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금세 지저분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확장은 다르다. 따뜻하게 데운 왁스를 눈썹 라인을 따라 바른 후 제거하면, 모근까지 뽀하기 때문에 적어도 3주간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확장을 반복하다 보면 계속 제거해야 하는 자리에 난 눈썹은 점점 사라지고, 원하는 결대로 눈썹을 관리할 수 있다. 손질하기 어려운 눈썹 윗라인까지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모하고, 뽑아내고, 확장을 손질하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확장을 하는 방법도, 도구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면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Brow Bar)를 찾으면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베네피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는 유쾌한 화장품 브랜드 베네피트가 맞다. 후시 백화점에서 베네피트 매장을 지나치다 마치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핑크색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여성들을 본 적은 없는지? 베네피트 매장에서 오로지 눈썹만 관리해주는 브로우 엑스퍼트들에게 정교하게 눈썹 손질을 받고 있는 풍경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베네피트의 브로우 왁싱 서비스는 이미 37년의 역사를 지녔고, 전 세계 50개국에 베네피트의 브로우 바가 있다. 2004년 롯데백화점 본점에 오픈한 브라우 바는 국내 최초로 눈썹 관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눈썹의 미래를 설계하는 베네피트 브라우 바

눈썹을 위해 단 30분만 투자하면 충분하다. 브로우 바 의자에 앉으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브로우 엑스퍼트와 어떤 스타일의 눈썹을 원하는지, 얼마나 자주 눈썹 손질을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된다. 미용실에서 눈썹을 손질해주는 미용사의 가느다란 눈썹을 보고 '저렇게 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절부절못했던 기억은 잠시 잊어도 좋다. 철저하게 매뉴얼에 기초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눈썹을 케어하기 때문에 눈썹 모양을 망칠 거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눈썹 손질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모양을 잡고 왁스를 바른 후 따끔한 느낌이 들면 테이프로 왁스를 떼어낸다. 눈썹 전용 집게인 트위저를 이용해 눈썹의 결을 살리고 술을 정리한다. 잔털까지 세심하게 정리한 후 진정을 돕는 간단한 스킨케어가 이어진다. 왁스는 물론 스킨케어까지 모두 베네피트의 제품을 사용해 모든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일반 네일 숍이나 에스테틱에서 받는 확장과는 그 꼼꼼함이 다르다. 입술 위의 잔털을 제거하는 립 왁싱 서비스의 경우, 확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제모 부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잠깐의 따끔함을 참으면 입가의 거뭇한 기운들이 사라지고 깔끔한 이미지로 거듭난다. 눈썹 솥이 없어서 확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솥이 적을수록 깔끔하게 확장을 눈썹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눈썹이 더욱 도톰해 보인다. 올해 베네피트는 충청과 광주, 울산에 새로운 브로우 바를 오픈하며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눈썹을 케어할 준비를 마쳤다. 브로우 왁싱은 단지 지금 순간 눈썹을 다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확장을 받으면 눈썹 결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넓게 퍼지는 눈썹의 형태도 자리를 잡게 된다. 또 원하는 눈썹 모양을 계획해서 연출할 수도 있다. 시행착오 없이 깔끔하고 아름다운 눈썹, 철저하게 위생적인 눈썹 케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베네피트의 브로우 바가 놀라운 해답을 줄 것이다. 예약 문의 1588-4059 **에디터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베네피트와 <스타일 조선일보>가 함께하는 브로우 바 왁싱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시고 전국 베네피트 브로우 바에서 브로우 왁싱(2만5천원 상당)을 받으면 립 왁싱(1만4천원 상당)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 기간 2013년 5월 2일~5월 31일 **교환 매장** 서울(롯데백화점 관악점·노원점·을지로 본점·스타시티점·영등포점·잠실점·청량리점), 경기도(롯데백화점 분당점·평촌점·구리점·현대백화점 김포점), 부산(롯데백화점 부산본점·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인천점·울산점·대구점, 신세계백화점 충청점·광주점, 대전 갤러리아타임 빌드점 ◆ **예약 문의** 1588-4059

※ 사전 예약하면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연 식물 성분으로 피부 리스토링에 중점을 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리스토링 라인. (왼쪽부터) 알로에와 발효시킨 파파야로 만든 알로에 크림,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한 발사 크림, 발효 파파야를 담은 파파야 젤 크림.

Restore your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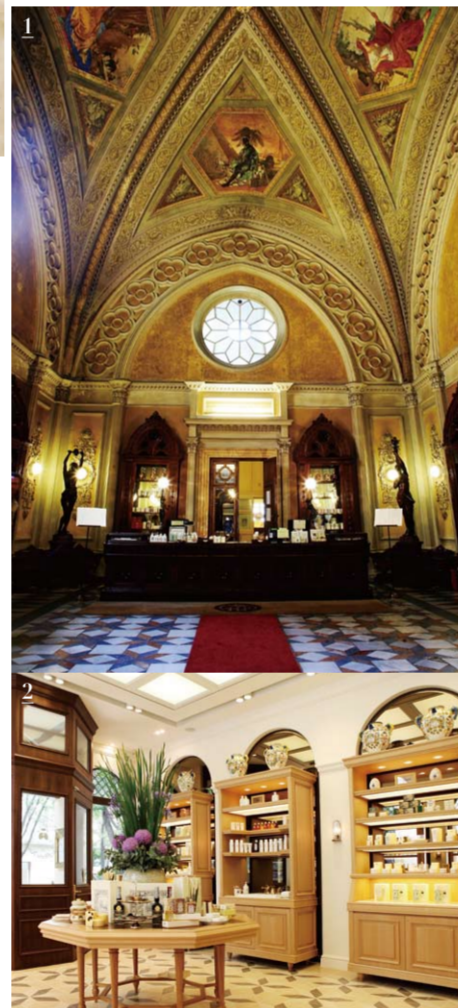
4백 년 전통의 뷰티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천연 식물 성분을 담은 리스토링 라인을 출시한다. 나이와 계절의 변화를 비롯해 스트레스와 공해 등 각종 유해 환경으로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차근차근 회복시킨다는 이 새로운 제품은 기존의 라인과는 차별화된 기능성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4백 년 전통의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산타 마리아 노벨라는 4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피렌체의 가장 오래된 약국이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예술, 장인 정신의 유산을 간직한 보석과도 같은 이곳은 피렌체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힐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프레스코화과 고가구, 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은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로 이동한 듯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가 언제부터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사가 피렌체에 정착한 12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수도사들은 건강을 위해 직접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직접 사용할 약과 연고, 향유 등을 개발하며 발전시켜나갔다. 이후 1612년에 토스카나 지방의 대공 페르난도 디 메디치 1세의 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약국을 설립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메디치가를 포함한 17세기 유럽의 왕족, 귀족들이 쓰는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명성은 인도, 중국까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오직 최고급 원료만 사용하고 전통적인 생산 절차를 그대로 따라 향수, 향초, 비누, 스킨케어와 같은 코즈메틱부터 꿀, 티, 허브 등 식료품까지 수공으로 생산하고 있다. 비누 하나를 만들더라도 60일의 숙성 시간을 거쳐 포장까지 하나하나 수작업을 고수하는 까다로운 제조법은 4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상의 제품 퀄리티를 유지하며 명성을 이어가는 비결이기도 하다. 16세기 메디치가의 카르린 공주가 프랑스 앙리 2세와 혼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한 향수 '오 드 콜롱 산타 마리아 노벨라'와 풍부한 장미 워터 '아쿠아 디 로즈',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세안용 비누 '사포네 벨루타나'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고풍성을 비롯해 유명 여배우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2010년 도산공원 플래그십 스토어 론칭 이후 제품을 경험한 이들이 늘면서 특별한 사람들이 쓰는 고급스러운 천연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천 피부의 회복을 위한 리스토링 라인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리스토링(Restoring)' 라인은 식물성 유추 성분을 바탕으로 손상된 피부를 재건하고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콘셉트로, 향과 텍스처가 각각 다른 세 가지 크림으로 선보인다. 19세기 방식 그대로 수작업만을 고수하던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최신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기능성 제품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감행한 것. 최고의 원료만을 고집한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아 이탈리아의 저명한 의사 클라우디오 칼라브레제 박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해 치유와 리스토링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발사 크림'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식물, 발사미타(balsamita) 추출물을 담은 재생 크림이다. '썩국화'라고 일컫는 발사미타는 대표적인 천연 항산화제 성분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조한 피부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모이스처라이저와 같은 가벼운 질감으로 발림성이 좋고 덧바르기 쉽다. 알로에와 발효시킨 파파야를 주성분으로 한 알로에 크림은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떨어진 탄력을 끌어올린다. 적은 양으로도 피부에 보호막을 씌운 듯 흡수되는 점이 매력적이라 쫄쫄하고 리지한 텍스처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비타민 A·C·E가 풍부한 발효 파파야를 담은 파파야 젤 크림은 쿨링감이 느껴지는 상쾌한 젤 텍스처가 특징. 가벼운 워터 젤임에도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 오일리한 느낌이 느껴지는 독특한 제형으로, 번들거림이 심하거나 지성 피부에 사용하면 더욱 만족할 만하다. 세 가지 모두 토너 후 크림 단계에서 바르는 제품이며 각각 선호하는 향과 텍스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면 좋다. 발사 크림 50ml 28만8천원, 알로에 크림 50ml 32만8천원, 파파야 젤 50ml 32만8천원. 문의 02-546-1612 **에디터 이예진**



1 이탈리아의 역사와 예술, 장인 정신의 유산을 느낄 수 있는 4백 년 전통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피렌체 매장. 2 도산공원 플래그십 스토어 산타 마리아 노벨라 매장. 3 5월의 예미 신부를 위해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웨딩 패키지'. 패키지를 구입하면 분홍색 장미 향의 알로에 크림과 로사시를 증정한다.



LX Factory

포르투갈 리스본의 오래된 공장이 서점과 레스토랑, 요리 학교를 갖추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다. 새로운 에너지가 모던하게 넘실대는 이곳은 그야말로 현대 문화의 좋은 본보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열정과 감각으로 가득한, 거대한 열린 공간

여기 앤디 워홀이 보자마자 15분 만에 반할 만한 장소가 하나 있다. 리스본 4월 25일 다리 근처, 테주 강까지 맞닿은 도시 동쪽에 위치한 이곳은 규모가 어마어마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천장, 1백여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보이는 거대한 쇼윈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오래된 공장들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는데 이웃들은 이 텍스타일 공장이 허물어지는 과정부터 새롭게 재탄생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공간이 새롭게 탄생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엘엑스 팩토리는 짧은 시간 내에 문화와 음악 애호가들,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멀티플한 변신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텍스타일이 생산되고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이곳은 휘발 리시오라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인쇄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프레스 기계와 윤전기들은 엘엑스 팩토리의 중심을 이루는 서점 레르 데바카르의 벽을 장식하고 있다. 도대체 서점의 벽을 둘러싼 책들은 몇 권이나 될까? 적어도 4만 권 이상은 족히 넘을 규모이다. 이와 동일한 인쇄소의 느낌을 이어받은 레스토랑 말라카 토(Malaca Too)는 인터스트리의 느낌을 간직한 채 맛있는 포르투갈 요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동선을 창조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건너편으로는 4층으로 이루어진 작가의 아틀리에가 눈에 들어온다. 패션에서 건축, 그래픽 디자인을 지나 공공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이 공간에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코진 호마니아(Cozin Homania)에서는 최고의 포르투갈 셰프들의 요리들을 직접 배울 수도 있다.

엘엑스 팩토리는 그야말로 색다른 분위기를 내는,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웹 디자이너들과 모델들, 패션 디자이너들과 주중에 이곳의 라칸티나(La Cantina)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한때는 방직공장의 구내식당이었던 이곳은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르 카페 드 파브리카(Le Café de Fabrica)에서 서비스하는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는 가벼운 점심 대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엘엑스 팩토리의 상점과 갤러리, 레스토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콘서트와 취임식, 이브닝 파티를 하기 위해 모여든다. 가장 마지막에 자리를 잡은 레스토랑 1300 타베르나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을 사랑하는 이유는 알맞은 규모와 테크레이션, 그리고 누노 바로스(Nuno Barros)의 멋진 요리들 바로 앞에서 감상하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포르투갈의 맛 중에서도 최고라 일컬어지는 그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S]

글 마리아 드 모라 올리베이라 사진 앙리 델 옴오 번역 지은경

1 한때 식민 공장 지대였던 포르투갈 리스본의 다리 근처 한 지역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환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 책더미 위에 펼쳐진 만남의 장소, 레르 데바카르 서점. 천장 높이가 14m인 사람은 인쇄소가 있던 자리에 위치하는데 작년 10월부터는 평행한 줄로 엮은 피에트로 프로세피오(Pietro Proserpio) 설치 미술이 전시되고 있다. 3 유럽의 간식사랑을 연상시키는 분위기, 옥스달린 표면과 가진 패턴트 자국이 남아 있는 가구들, 그리고 색색의 점사들은 실제 로 이전 공장의 구부속에서 사용하던 재물들이다. 4 다리 밑의 폐공장들도 이제 신듯한 건물으로 사선을 사로잡는다. 5 한때 방직공장의 구부속이었던 라 칸티나 레스토랑. 6 마리아 모이노스(Maria Moisés)의 아틀리에. 채색된 의자와 테이블, 천장과 기둥 등은 입구에서부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7 애잔아 사용되었던 인쇄기는 새로운 요리 메뉴를 기뻐하는 식당에서 요리사들 등을 장동하는 천장으로 말바꿈했다. 의자와 조명등도 모두 깔끔하게 바꾸었다. 8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로사리노 가브리엘(Rosario Gabriel)과 하우스 워드 노 도어(House with No Door)사의 협업으로 탄생된 1300 타베르나(1300 Taberna) 레스토랑의 주방은 출몰을 향해 오픈되어 있다. 이곳에서 실험적인 요리들을 선보이는 셰프, 누노 바로스(Nuno Barros)는 포르투갈의 로컬 푸드 스타일로 유명하다. 엘엑스 팩토리의 맨 트리트먼트에 위치하며, 울트라 인터스트리 데카레이션 트렌드와 함께 최상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국적인 풍경과 유럽의 편안한 여유가 조우하는 곳

wonderful Moroc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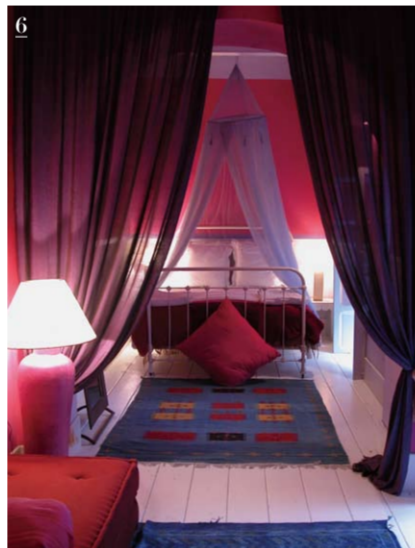
유럽인들에게 모로코는 이국적인 나라의 대명사이다. 언제나 따뜻한 날씨, 사막과 바다, 산악 지대 등 모든 지형 조건을 갖추어 경이로운 자연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색색의 향신료와 토산품이 가득한 그들의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분주한 모로코인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럽인들은 매력적인 모로코의 기후와 자연경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터를 잡아왔다. 그곳에서 우리는 유럽의 고급스러운 여유와 모로코의 이국적인 풍경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대서양과 사하라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 에사우이라(Essaouira)

에사우이라는 18세기 말 유럽식으로 요새화된 항구도시이다. 마을 전체를 성벽으로 감싸 지은 메디나(Medina)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했을 뿐 아니라 모진 기후를 이겨 내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게 해준 에사우이라의 삶의 터전이다. 메디나는 이전에 모가도르(Mogador)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작은 요새라는 뜻의 페니키아어 미골(migol)에서 유래했다. 메디나는 유럽의 축성 원리로 건축되었지만 아랍-이슬람 스타일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힌다. 이곳은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유럽과 잇는 중요한 연결 지점 역할을 하며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발달해왔다. 에사우이라의 메디나 내부는 복잡하고 좁은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좁은 길들을 구석구석 산책하다 보면 모로코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집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에사우이라의 집 구조는 다른 도시의 집들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띤다. '리' 자 구조로 지은 집들의 중앙에는 작은 안뜰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천장에서 내려오는 햇빛 덕에 집 안은 항상 따스롭고 밝은 빛을 머금고 있다. 이 정사각형의 안뜰을 에사우이라인들은 리아드(Riad)라 부른다. 이 리아드는 유럽인들이 이국적인 풍류를 즐기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지미 핸드릭스와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손 웰스 또한 에사우이라의 리아드를 사랑했으며 이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매력적인 리아드의 멋진 분위기를 잘 살려 건축한 호텔들 두 곳 소개한다.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_ 카사 릴라(Casa Lila)

고급스러운 모로코식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부티크 호텔 카사 릴라는 모로코식 리아드 정원의 아름다운 테라스와 향기로운 차, 천상의 타키시 스파인 허밤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각각의 객실은 모로코 특유의 색과 구조로 꾸며 공간마다 신비롭고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에사우이라에서 직접 생산되는 모와 실크 커튼, 카펫, 각종 허브와 향신료, 특히 이곳의 특산품이자 세계 제일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르간 오일 등 최상의 다채로운 상품을 모두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질푸른 대서양을 내려다볼 수 있는 호텔의 옥상은 아름다운 모로코 타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일광욕을 하며 달콤한 페퍼민트 차와 신선한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Casa Lila-Maison d'Hôtes
Bab Marrakech 94, rue Mohamed EL QORRY
Essaouira Morocco Tel·Fax +212 5 24 475 545
riadcasalila@hotmail.com www.casalila-riad.com

1 대서양을 끼고있는 모로코 에사우이라의 메디나. 2 호텔 에르 블루의 리아드식 테라스. 모로코 궁전의 모습을 재현해놓았다. 3 항구도시 에사우이라의 메디나 입구. 4 에사우이라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향신료 가게. 5 부티크 호텔 카사 릴라 내부의 계단은 모로코의 아름다운 전통 타일들로 장식되었다. 6 카사 릴라의 객실은 동화 속에 나오는 방을 연상시킨다. 7 모로코 타일과 에사우이라 산도 불렛처럼 꾸민 스위트룸.



HEURE BLEUE PALAIS Palais
2, rue Ibn Batouta - Bab Marrakech
44 000 ESSAOUIRA Morocco
Tel +212 5 24 78 3434 Fax +212 5 24 47 4222
info@heure-bleue.com www.heure-bleue.com



8 에사우이라 사막이 한눈에 보이는 카사 릴라의 옥상 테라스에서는 뜨겁고 건조한 사하라 사막의 바람과 대서양의 시원한 공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9 에르블루 호텔 객실의 정원은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파란색 대문과 모로코 타일로 꾸며져 있다. 10 에르블루의 모든 객실의 페넬로페 에사우이라산 최고의 모직을 원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11 카사 릴라의 리아드식 리움에서는 모로코식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Jardin Majorelle Marrakech, MAROC
Tel +212 24 30 18 Fax +212 24 30 18 94
www.jardinmajorel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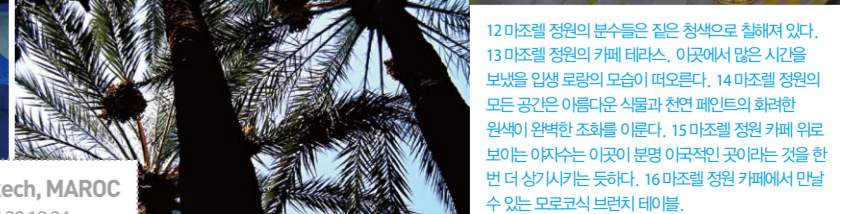
모로코 궁정의 호화로움_ 에르 블루(Heure Bleue)

모로코 궁전의 모습을 재현한 호텔 에르 블루. 에르 블루는 파란 시간, 즉 동트기 전 시간이라는 뜻이다. 바닷가에 위치한 모로코 도시의 모든 문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마치 동화 속 작은 마을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파란 문에 들어서면 외부 세상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천상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하여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 왕실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건축과 조각, 모로코 스타일의 아치, 드넓은 리아드 테라스의 천장은 키 큰 나무들이 평화롭게 떠받치고 있다. 각 객실 또한 모로코 왕실의 분위기처럼 장식되었고, 각 테마에 따라 다른 모로코식 주거 생활을 재현해놓기도 했다. 호텔의 옥상에 마련된 스위밍 풀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메디나의 모든 동네를 내려다보며 수영을 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보라색 노을과 모로코식 등불,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 하겠다.

모로코를 사랑한 입생 로랑(Yves Saint-Laurent), 그가 남긴 아름다운 모로코 정원 Jardine Majorelle)

20세기 최고의 오프 쿠튀르 산구저인 입생 로랑.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지만 그의 열정과 에너지, 시간이 만들어낸 마라케시의 마조렐 정원은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그가 남긴 지상 위의 낙원, 아름다운 마조렐 정원에 들어가보자. 프랑스 낭시 출신의 자크 마조렐은 1919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정착했다. 그는 프랑스의 화단에서 명성을 떨치던 화가로, 항상 자연과의 교감을 화폭에 담았다. 1947년 그는 자신이 직접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교통사고로 건강을 잃자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1962년에 사망했다. 이후 1980년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er)와 입생 로랑(Yves Saint-Laurent)은 이곳을 사들여 정원과 식당으로 꾸미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마라케시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가운데 한가롭고 고요한 자연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음을 잠시 잊을 수 있다. 아름다운 한낮의 햇살과 강한 콘트라스트를 주어 채색한 페인트 색, 아름다운 꽃과 자연, 새가 한곳에 모여 영락없는 천국의 느낌을 자아낸다. 그리고 5대륙의 식물을 가져와 테마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 입생 로랑의 콘셉트를 불어넣었다. 모로코의 전통 건축양식과 프랑스 화가의 색, 그리고 전 세계의 희귀한 자연의 모습, 고급스러운 입생 로랑풍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디테일이 한곳에 어우러져 모로코를 찾는 프랑스인들은 꼭 한번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프랑스인들에게 모로코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럽과 동남아, 미국 등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서서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그곳의 공기와 어울리며 또 다른 새로움을 창조하는 일은 이전부터 수없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은 알게 모르게 세계 곳곳을 가꾸고 보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거나 사진을 남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자연과 삶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가꾸어놓은 외판 정원을 좀 더 의미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영혼은 모로코의 마조렐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다. **ST** 글: 지음영류 통산원



12 마조렐 정원의 분수들은 깊은 청색으로 칠해져 있다. 13 마조렐 정원의 카페 테라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보색을 입생 로랑의 모습이 떠오른다. 14 마조렐 정원의 모든 공간은 아름다운 식물과 천연 페인트의 화려한 감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15 마조렐 정원 카페 위로 보이는 아자수는 이곳이 분명 이국적인 곳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듯하다. 16 마조렐 정원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모로코식 브런치 테이블.

PRADA
EYEWEAR